



삼양그룹은 1924년 창업한 삼양사를 모태로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신사업 등의 핵심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사, 삼양패키징, 삼양바이오팜, 삼남 석유화학 등을 포함하여 삼양홀딩스 하에 13개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사입니다.

삼양그룹 **samyang**

전사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경영 기획에 참고

'경영기획을 위한 솔루션 도입 시에는 도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과 표준화된 관리라는 측면에서 IBM Planning Analytics를 선택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윤경수 부장, 삼양홀딩스 경영기획팀 -



Client Needs

삼양 그룹은 2011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Single Number' 이니셔티브 하에 통합과 표준화를 목표로 **지주사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계열사들이 일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기획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일부 계열사들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경영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별 분석 관점에 따라 서로 동일하지 않은 기준으로 작성된 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오류는 물론, 휴먼 에러로 인한 착오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IBM Solution • IBM Planning Analytics • IBM Cognos BI



Why IBM?

삼양그룹의 지주사들은 기존에 경영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라클의 하이퍼리온을 사용해왔습니다. 경영 기획을 위해 전사적으로 통합된 데이터 분석 툴을 도입하기 위해 삼양그룹은 다양한 벤더들의 솔루션을 시연을 통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배치 작업이 필요했던 기존에 사용하던 솔루션과 달리 인메모리 기반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기능은 물론 유지보수도 다른 툴들에 비해 쉽고 용도를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도 큰 IBM Planning Analytics를 선택하였습니다. 판매 ⇒ 생산 ⇒ 구매 ⇒ 경영기획 등의 과정에서 상호 데이터를 공유하여 업무 협조를 할 경우 기존에는 각 단계마다 일정시간을 소요하여 배치작업을 해야했던 반면, IBM Planning Analytics 도입 이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습니다.



Solution Effect

IBM Planning Analytics 도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서는 지주사의 경영기획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계열사의 관련 부서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취합을 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했던 반면 전 계열사가 IBM Planning Analytics를 도입하여 직접 해당 데이터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입력하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통합된 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취합 및 통합 분석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른 분석의 상이함이나 에러도 해소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영 기획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를 통해 새로운 담당자의 역량을 기존 담당자의 이해도만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반면, 시스템 기반으로 이미 Setting되고 제공 되는 데이터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도 최소화되었습니다.